

류현진, 부상 이후 첫 2경기 연속 승리 '굿스타트'

샌디에이고전 선발 등판해 6이닝 2실점 9삼진...10-3 승리 앞장

선발 무너진 LA다저스 내 입지 넓어질 전망...올시즌 마치고 FA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1·LA 다저스)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천적’ 면모를 과시하며 부상 이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승리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코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3피안타(1홈런) 2실점으로 호투를 펼쳐 다저스의 0-0 승리에 앞장섰다.

빠어난 투구였다. 93개의 공으로 60년을 책임진 류현진은 57개의 공을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었고 무려 9개의 삼진을 속아냈다. 볼넷은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이로써 류현진은 2경기 연속 승리 투수가 되며 시즌 2승째를 수확했다.

약속의 땅에서 일군 승리다. 류현진은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자랑했고, 펠코파크에서는 한층 좋은 기억이 많다.

류현진은 지난해까지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통산 7경기에 선발 등판해 4승 1패 평균자책점 2.57을 기록했다. 펠코 파크에서 선발 등판한 경기는 3경기였는데 패배없이 2승, 평균자책점 0.90의 성적을 거뒀다.

자신감있게 공을 뿌린 류현진은 샌디에이고전 강세를 이어갔다. 2회 말 선두타자 헨터 렌프로에 2루타 크리스티안 빌라누에바에 좌월 투런포를 맞은 것이 유일한 욕에 비꼈다.

류현진은 시즌 첫 등판에서 부진했으나 2경기 연속 승리를 수확하며 기본종개 시즌을 출발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지난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3%이닝 5피안타 5볼넷 2탈삼진 3실점으로 부진했던 류현진은 11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6이닝 동안 안타 1개, 볼넷 1개만을 내주며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다. 삼진을 무려 8개나 잡아냈다.

이날도 탈삼진 본능을 자랑하며

호투를 이어간 류현진은 팔꿈치 어깨 부상 이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승리를 챙겼다.

류현진이 2경기에서 연달아 승리 투수가 된 것은 2014년 7월 22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7이닝 2실점), 같은 달 28일 샌프란시스코 지이언츠전(6이닝 3실점) 이후 4년 여 만이다. 당시 류현진은 7월 14일 샌디에이고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해 3경기 연속 승리를 수확한 바 있다.

어깨와 팔꿈치 부상으로 2015~2016년 1경기 등판에 그친 류현진은 지난해 부상을 털고 돌아왔다. 류현진은 지난해 7월 18일 신시내티 레즈전부터 8월 25일 피츠버그 전까지 3연승을 달렸으나 9경기에 걸쳐 탈삼진 것이었다.

2경기 연속 쾌투 덕에 5선발로 시즌을 시작한 류현진의 입지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최근 다저스 2~4선발이 고전을 면치 못한 탓에 류현진의 쾌투는 한



총 빛난다

다저스는 지난 13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의 알렉스 우드(3%이닝 7실점), 15~16일 애리조나전의 마에다 겐타(2%이닝 5실점), 리치 힐(5이닝 7실점) 등 선발진이 줄줄이

무너져 3연패에 빠졌다.

다저스 선발 투수 가운데 2경기 연속 호투로 평균자책점을 2.87로 끌어내린 류현진보다 평균자책점이 낮은 것은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와 마에다 뿐이다. 그러나 한 차례 불

펜으로 등판했던 마에다가 선발로 나선 2경기에서 소화한 이닝은 7%에 불과하다.

올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류현진의 중요한 시즌 출발이 기대된다.

피겨간판 차준환 “평창은 소중한 경험, 베이징 시상대 꿈”

“다음 시즌 시니어 무대 어울리는 모습 선보일 작정”

초코파이 광고에 출연한 피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스케이트를 타 보고는 얼굴에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 좋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됐다. 이제 고등학생이 돼 제법 청년의 모습이 엿보이

는 ‘초코파이 피겨’는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간판으로 자라나 당당히 태극마크를 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빙판을 누렸다.

차준환(17·휘문고)이다. 차준환은 주니어 그랑프리 데뷔 시즌인 2016~2017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2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 한국

피겨 남자 싱글 사상 최초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메달(3위)을 차지하며 단숨에 한국 남자 싱글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오른 발목과 고관절 부상 속에 평창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 차준환은 3차 선발전에서 대역전극을 일구며 기적적으로 평창올림픽 참가권을 따냈다.

차준환은 첫 올림픽 무대를 15위로 마쳤다. 기 대한 ‘툼!’ 진입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쇼트프로그램(88.43점)과 프리스케이팅(165.16점), 총점(248.59점)에서 모두 자신의 ISU 공인 최고점을 갈아치웠다.

본격적으로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무대를 누빌 2018~2019시즌 ‘시니어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

다는 차준환은 전성기로 접어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메달까지 노려보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차준환은 “다음 시즌은 체격적으로 차근차근 하고 싶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보완해 대회에서 구성한 것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조금 더 시니어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표”라는 각오를 드러냈다.

“베이징올림픽은 아직 광장히 먼 이야기다. 매 시즌 부상없이 해서 나아가고 싶다”는 차준환은 “베이징올림픽을 생각하면 평창올림픽은 소중한 중요한 경험이다. 올림픽에서 시상대는 모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고, 나도 그 정도 욕심을 가지고 있다. 부상없이 성장해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추신수, 18타석만에 ‘행운의 안타’

탬파베이전 4타수 1안타...부진탈출 신호탄

타격 침체에 빠진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행운의 안타로 기나긴 무안타의 침묵을 끝냈다. 1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벌어진 2018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 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토론토전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이후 6경기에서 28타수 1안타 2볼넷 9삼진의 극심한 슬럼프에 허덕였다. 3할대 타율은 불과 1주 사이에 2할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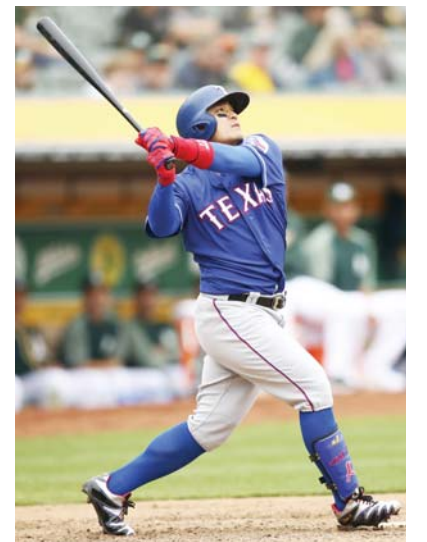
12일 IA 에인절스전 9회 마지막 타석에서 가까스로 안타를 때려낸 뒤로는 14타석 연속 안타는커녕 1루조차 밟지 못했다.

이날도 초반 3타석에서 무기력했다. 1회 초 첫 타석에서 비교적 잘 맞은 타구가 중견수에게 잡혔다. 3회에는 1루 땅볼로 아웃됐고 6회에는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연속 무안타는 17타석으로 늘었다.

타격 부진이 길어지며 타석에서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다. 6회 삼진을 당한 뒤 더그아웃으로 발걸음을 옮긴 추신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8회 마지막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자심한 듯 초구부터 방망이를 돌렸다. 빗맞은 타구는 수비 시프트로 유격수 자리에 있던 3루수 키를 살짝 넘겼다. 좌익수 조니 필드가 공을 쫓았지만 손을 쓰지 못하면서 행운의 안타가 됐다.

뉴스



오랜 만에 1루에 안착한 추신수는 드루 로빈슨의 볼넷에 이은 노마 마저라의 스리런 홈런으로 홈을 밟아 7경기 만에 득점도 올렸다.

추신수는 타율이 소폭 상승해 0.211(71타수 14안타)로 2할대 타율을 유지했다. 행운의 안타가 타격 부진 탈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 초반부터 대량 실점한 텍사스는 경기 내내 끌려다니 끝에 4-8로 졌다. 연승에 제동이 걸리며 6승 12패가 됐다.

그러나 패배와는 별개로 여러 좋은 징조가 있었다. 추신수가 18타석 만에 안타를 신고했고, 마지막 14경기 만에 홈런포를 가동했다.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제시 채베스가 4이닝을 무실점으로 홀로 책임지며 향후 불펜 가동에 여유를 줬다.



펠레 ‘네이마르, 월드컵 전 부상 회복할 것’

“러시아WC 이변 가능성 낮아...브라질, 조직력 갖춰야”

‘축구전설’ 펠레(77)가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에이스인 네이마르(26)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펠레는 네이마르가 2018 러시아 월드컵 이전에 부상에선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며 브라질의 통산 6번째 우승을 이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PSG) 소속인 네이마르는 2월26일 올림픽 마르세유와의 경기 도중 오른쪽 발목과 종골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네이마르는 지난날 초 브라질 발루오리존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자국에서 재활 치료를 해왔다.

펠레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러나 네이마르의 부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월드컵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월드컵에서

3차례 우승한 펠레는 “네이마르가 나처럼 월드컵에서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는 덕담도 했다. 네이마르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콜롬비아와의 8강전에서 허리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빠졌다.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독일에 1-7로 참패했다. 펠레는 “치치 감독이 조직력을 끌어올릴 시간이 있어 이번 월드컵에서 브라질에 대해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펠레는 “브라질은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수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문제는 팀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이번 월드컵 때 훌륭한 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번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한다”며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 독일, 잉글랜드 프랑스 등이 우승 후보다”라고 말했다.

뉴스



16일(현지시간) 요르단 아시안컵 여자축구대회 5,6위 결정전에서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은 상대 필리핀을 5-0으로 대파, 월드컵 본선 2회 연속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가운데 우리나라 코칭 스태프가 경기 전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윤덕여 감독 “끝이 아닌 시작”...女축구 월드컵행

한국 여자 축구를 다시 한 번 월드컵 본선행으로 이끈 윤덕여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모든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은 17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의 암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5·6위 결정전에서 필리핀에 5-0 완승을 거뒀다.

필리핀전 승리로 한국은 대회 상위 5개국에 주어지는 내년 프랑스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했다. 2015년 캐나다대회에 이어 월드컵 2회 연속 진출이다.

윤 감독은 “4강에 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선수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미련은 없다”면서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 더 큰 월드컵 무대를 위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